

기계인간은 노동저항 줄이려는 자본의 산물

로봇에 담긴 인간의 꿈과 욕망

김상득 | 전북대 철학과 교수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인간기계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됐다. 이런 로봇공학이 '노동으로부터의 인간해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저항으로부터의 자본가 해방'이라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소외되지 않는 노동이 아닐까.



로봇이 개발된 이유는 노동을 대신해주는 '인간기계'의 필요성 때문이다. 사진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전시된 로봇 구조물.

그리스 신화 가운데 손재주가 비범한 인물인 다이달로스 이야기가 있다. 그는 크레타 섬에서 미노스 왕의 노여움을 사 자기가 만든 미궁에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갇힌다. 미궁의 삶은 너무 지루하고 따분했다.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빠져나갈 탈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는 침탑 위로 새떼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새의 깃털을 모은 다음 밀랍으로 붙여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 도망갈 묘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힘껏 날개를 저어 날아가던 그의 아들 이카로스는 델로스 섬을 지날 즈음 하늘을 나는 기분에 도취돼 너무 높이 날다 그만 추락해 죽고 만다. 태양이 날개를 이어 붙인 밀랍을 녹여버린 탓이었다.

노동에서 탈출하기 위해 로봇 만들어

사람들은 로봇을 만드는 것일까?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일까? 물론 일차적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로봇 개발이 돈이 되는가? 그에 대한 해답도 간단한데 인간은 3D 업종의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런 노동을 노예에게 맡겼다. 물론 이제는 노예가 없어졌지만 노예가 해왔던 일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예처럼 인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봇이다. 문명의 인간 역시, 신화 속의 다이달로스처럼 노동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로봇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실제로 로봇이란 단어는 1921년 체코의 극작가 차페크(K. Capek)

가 쓴 《로섬씨의 만능 로봇(Rossum's Universal Robot)》이란 제목의 희곡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 희곡에서 로섬 부자는 인공 원형질(artificial protoplasm)을 이용해 케으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인조인간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이 인조인간이 바로 로봇이다. 로봇의 어원은 체코어 '로보타'(Robot)인데, 이 역시 '강요된 노동력, 노예상태'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로봇이 개발된 일차적 이유는 바로 노동을 대신해주는 '인간기계'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욕망은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최초의 로봇 '엘렉트로'가 선보임으로써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1962년 미 유니메이션사에서 세계 최초로 산업용 로봇을 개발 시판했으며, 그 이후 산업 자동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개발됐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을 넘어, 과학자들은 로봇을 통해 인간 이상을 실현하고자 인간의 감성과 지능을 지닌, 그래서 인간처럼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humanoid robot)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일본 혼다사의 아시모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인간형 로봇이 활동중이다. 아직 로봇의 감성이나 지능 수준은 초보 단계지만, 로봇 과학자 모라베크는 2040년경에는 인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이 등장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로봇 사피엔스'(robot-sapiens)라는 새로운 종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소외 더욱 심해질 것

그러면 우리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과학의 쾌거로

박수갈채를 보내야 하는가? 과학자는 ‘어떻게’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지지만, ‘왜’라는 궁극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지만 이 카로스의 비극을 맞지 않으려면 현대의 로봇공학은 바로 날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인간형 로봇 개발이 정말로 몇몇 소수 인간이 아니라 전 인류의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까?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복 지수는 욕망을 분모로 하고, 욕망 충족을 분자로 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인류는 그 동안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관한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스토아철학의 금욕주의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역시 이런 철학 사조다. 우리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서로 상반되는 윤리 이론으로 이해하나 사실 그 뿌리는 같다. 즉 이 두 사상은 모두 행복을 인간 최고의 목적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방법의 차이에서 서로 갈라질 뿐이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에피쿠로스 학파는 분자의 수를 크게 하는 전략인 욕망 충족으로 나아갔고, 반면에 스토아학파는 분모의 수를 줄이는 전략을 택해 욕망 자체를 억제하는 금욕주의로 나아갔다. 현대 과학기술자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에 비해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지수는 거꾸로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분모에 해당되는 인간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과학만능주의 사고방식에 흠뻑 젖어, ‘과학기술의 발전=인류 행복 증진’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과학은 과학일 따름이다. 과학기술은 인류 번영과 행복 실현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며, 아니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류 번영이나 인간 행복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인간형 로봇이 노동을 대신해주고, 나아가 설사 사랑을 표현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준다 해도 그로부터 곧바로 인간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귀결은 얻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외부 환경에,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있다.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문명의 이기인 로봇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 등이 훨씬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의 소망대로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패러다이스인가? 노동 절대량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일거리를 줄여 실업자를 대량 양산할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인간형 로봇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로봇은 결코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또 그 수명도 길고, 게다가 자본가는 로봇 노동자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로봇채용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로봇공학은 ‘노동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대의명분이지 그 이면에는 ‘노동저항으로부터의 자본가 해방’이란 또 다른 자본주의 논리

가 지배하고 있다. 이 자본가 논리가 로봇공학을 지배하게 될 때 인간형 로봇은 소수 가진 자의 복지와 행복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오히려 행복을 앗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갈파했듯, 인간은 노동하는, 그것도 사회적으로 노동하는 존재다. 노동 소외로부터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 해서 아예 노동을 회피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 욕망은 마르크스의 원래 뜻에 대한 왜곡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소외되지 않은 노동, 즉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노동이 아닐까?

‘인간형 로봇’ 이전에 ‘로봇 윤리’부터 마련해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을 위한 과학’이란 이상이 무너지고, ‘과학을 위한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예’여야 하나, 거꾸로 인간이 점점 더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로봇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계의 발달로 인간의 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의 욕망을 지닌 이기적 동물이다. 그렇다면 인간형 로봇 역시 자기 종족인 로봇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을 지니게 될 것이 아닌가? 이는 결국 인간 종과 로봇 종 사이의 새로운 충돌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는 인간의 바람은 아니지만 인간형 로봇이 가져올 필연적 결과가 아닐까? 인간의 노예이기를 소망한 인간형 로봇이 거꾸로 우리 인간을 향해 로봇의 노예가 돼주기를 바랄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는 이미 로봇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차페크의 희곡 《로섬씨의 만능 로봇》의 결론이기도 하다. 즉 이 책에서 로섬 부자는 처음에 인조인간인 로봇을 만들고 판매해 이익을 남기지만, 나중에는 거꾸로 로봇이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실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인간을 모두 죽이고 만다.

인공지능과 감성을 지닌 인간형 로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물음이 아니라, 이런 로봇을 만들어도 좋은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학자는 언제나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논리를 따르나, 인간은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야 한다. 바야흐로 ‘로봇 윤리’(robot ethics)가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늘을 날기 전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로스에게 당부한 말이 기억난다. “아들아, 너무 높게 날아서도 아니 되고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아니 된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이 날개를 녹여 버릴 것이며 너무 낮게 날면 날개가 물에 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봇공학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정말 어느 수준까지 인간형 로봇을 발달시키고, 또 로봇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

김상득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생명의료윤리학》 등을 펴냈고, 《21세기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과 생명의료윤리: 인간개념》(임신중절과 페미니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